

◆ 미 수은의 발전설비 수출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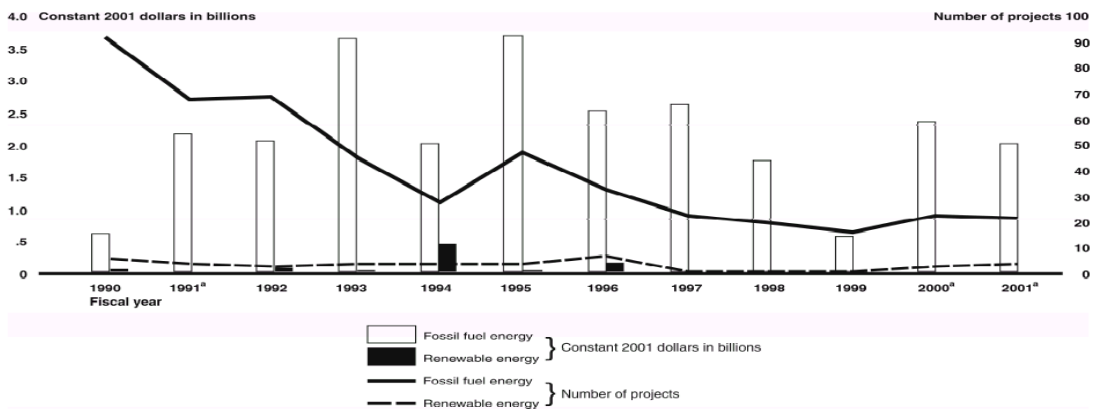
미 수은이 지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에너지 부문에 대하여 지원한 총 280억 달러 가운데 약 93%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재래식 발전설비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중 미 수은이 지원한 프로젝트 건수에 있어서는 1990년대 초반에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액에 있어서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편, 지열, 태양열, 수력발전 등 재사용이 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를 활용하는 비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 수은이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본승인 신청을 승인하는 비율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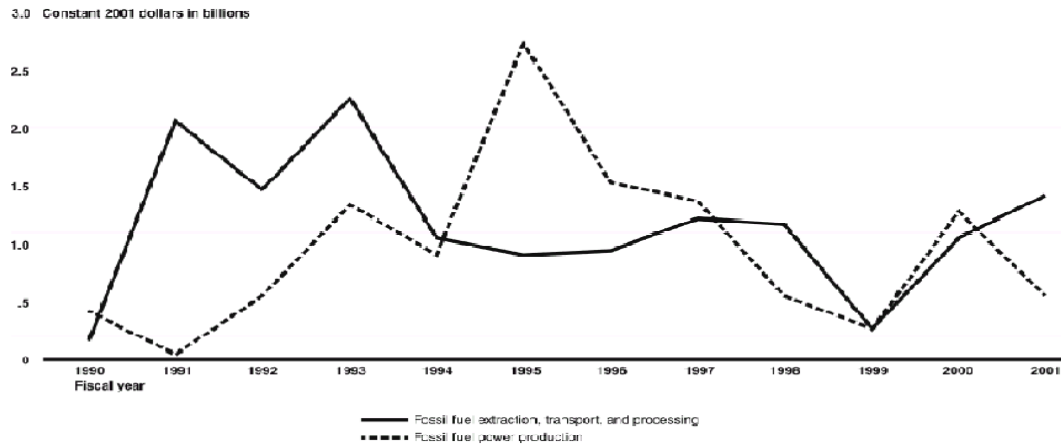
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 승인건수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매년 크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승인금액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미 수은은 동 기간 중 총 474건의 재래식 발전설비 지원을 승인하였는데, 연도별로는 1990년의 91건에서 1999년에는 1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0년과 2001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의 지원 금액은 총 257억 달러로, 연간 지원액은 1993년의 5억 4,600만 달러에서 1994년 및 1995년에 각각 36억 달러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간 건당 평균지원액도 1990년의 700만 달러에서 1995년에

〈그림 1〉 1990~2001년 중 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출 및 보증지원 실적



주: 핵발전설비는 제외
자료: 미 수은

〈그림 2〉 1990~2001년 중 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지원금액 추이



자료: 미 수은

는 7,9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미 수은이 지원한 재래식 발전설비의 유형도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그림 2〉에서와 같이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원유,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된 시추, 운송, 가공설비와 파이프라인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을 사용하는 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재래식 발전설비의 지원대상국 중 최대 수혜국은 멕시코로서 동 기간 중의 총 지원액의 약 16%를 차지하였으며, 베네수엘라와 알제리가 그 뒤를 이어 각각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건수로는 알제리와 멕시코가 과거 12년간 지원된 총 건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원거래들은 1990년대 초반 지원된 중소 규모의 대출 및 보증거래들이었다.

비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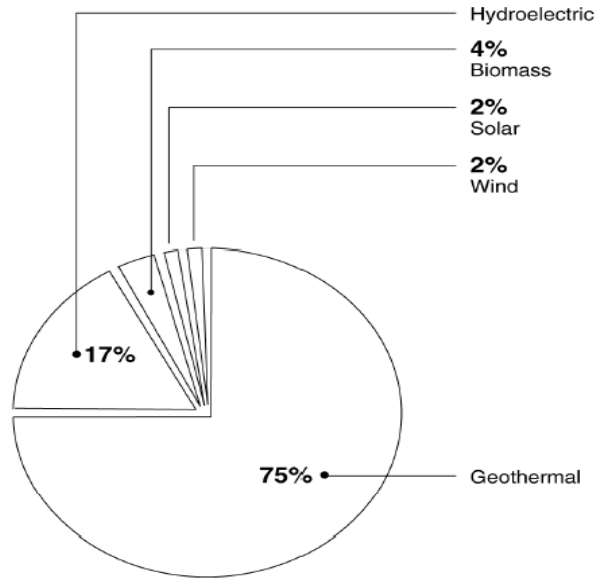
비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한 미 수은의 지

원실적은 동 기간 중 총 30건으로, 전체 발전설비 지원건수의 6%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대부분의 지원은 199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주로 수력 및 지열 발전설비의 수출거래였다. 특히, 2000년 및 2001년에 지원된 프로젝트 중에는 3건의 수력발전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2건의 태양열 발전설비가 포함되었다.

비재래식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금액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 총 7억 3,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에너지 부문 지원액의 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원액의 약 60%인 3억 9,500만 달러가 1994년 필리핀의 대형 지열발전 프로젝트 2건에 대해 제공되었다. 수력 및 지열 발전설비는 비재래식 발전설비의 각각 75% 및 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태양열, 풍력 및 biomass 프로젝트에 지원된 금액은 총 지원액의 8%에 불과하다.

〈그림 3〉

1990~2001년 중 비재래식 발전설비의 유형별 지원비중



자료: 미 수은

수출보험 및 운전자본보증 지원실적

미 수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총 지원의 89%는 대출 및 보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출보험 및 운전자본보증 실적은 각각 10% 및 1%에 불과하다. 수출보험 지원은 재래식 발전설비의 경우 금액은 연도별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비재래식 발전설비의 경우 금액 및 건수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운전자본보증 지원은 재래식 발전설비의 경우 금액이 점증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수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비재래식 발전설비의 경우는 동 기간 중 단 2건의 프로젝트만이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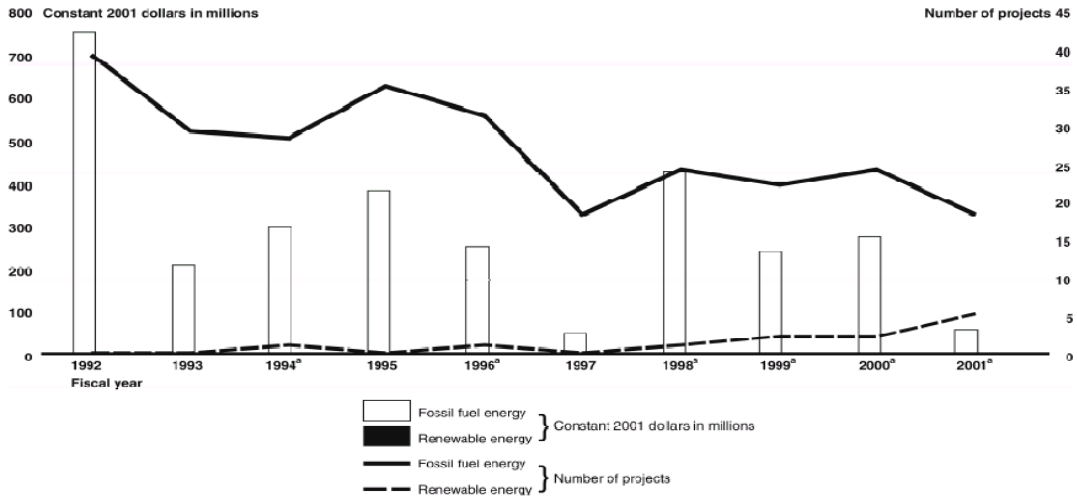
가. 수출보험을 통한 지원실적

미 수은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281건, 29억 달러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수출보험을 지원하였다.¹⁾ 〈그림 4〉에서와 같이 재래식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규모는 1992년 최고 7억 4,900만 달러에서 1997년 4,500만 달러, 2001년 5,200만 달러 등 매년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지원 건수는 동 기간 중 50% 이상 감소하여, 1992년 39건에서 2001년에는 18건을 기록하였다.

반면, 비재래식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은 증가세를 보여 총 12건, 3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10년 중 4개년도는 지원실적이 전무하였으나, 지원금액은 1994년의 17만 달러에서 2001년 71만 1,000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100만 달러가 넘는

1) 미 수은은 1992년에 수출보험 취급을 시작하였음.

〈그림 4〉 1992~2001년 중 에너지 부문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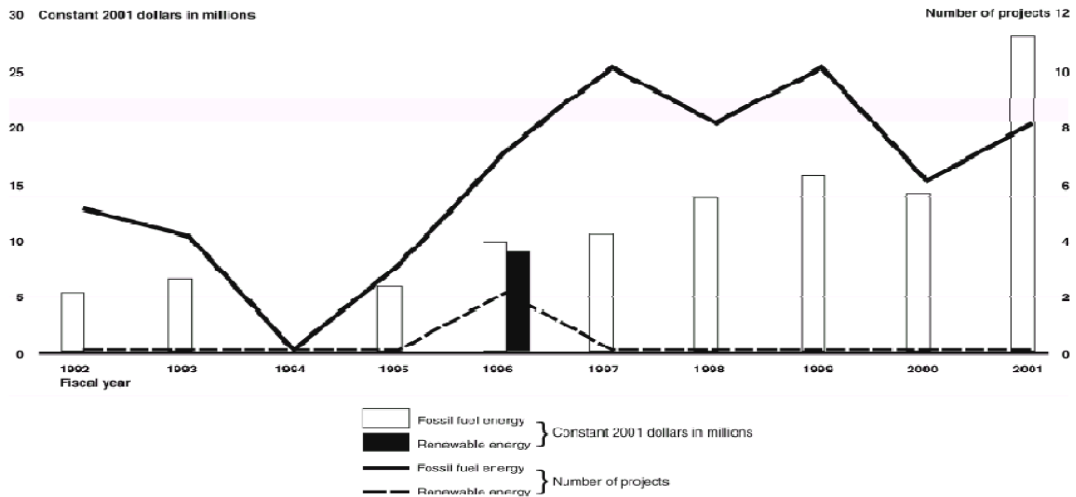
주: 핵발전설비는 제외
 자료: 미 수은

수출보험 실적을 기록하였다. 지원건수 역시 1992년에는 전무하였으나 2001년에는 5건으로 늘어나, 비재래식 발전설비를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미 수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운전자본보증을 통한 지원

미 수은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운전자본보증을 통하여 총 64건, 1억 2,000만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부문 수출을 지원하

〈그림 5〉 1992~2001년 중 에너지 부문에 대한 운전자본보증 지원실적



주: 핵발전설비는 제외
 자료: 미 수은

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비재래식 발전 설비에 대한 운전자본보증 지원은 1994년에는 전무하였으나, 이후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의 경우 지원총액은 1,4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2,800만 달러로 지원규모가 2배로 증가했다. 한편, 지원건수는 매년 큰 편차를

보여, 1994년에는 지원실적이 전무하였다가 1997년과 1999년 각각 10건을 기록하였다. 총 지원실적의 80% 이상은 199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재래식 발전 설비의 경우 1996년에 2건, 89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 전부이다.

【金 暎 起】